

Japan Weekly Digest

2011. 9. 24. ~ 9. 30.

금주의 이슈

- 일본기업의 해외 M&A 붐

일본기업전략

- 파나소닉, 리튬이온전지 중국에서 50% 생산계획
- 일본 부품기업 중국내륙부 진출
- 이토츄상사 프랑스기업과 제휴,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판매

경제산업성 동향

- 2012년도 경제산업정책 과제와 대응 발표
- 중소기업 의료기기개발 지원
- 산할법에 의한 사업재구축계획 인정

보고서 리뷰

- 『신흥국기업의 대두와 환율 전가』 일본은행, 9월27일



ష업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기업의 해외M&A 붐

- 금년 4월~5월 기간중 일본기업들에 의한 해외 M&A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.2배가 증가하여 3조엔에 달함. 글로벌기업만이 아니라 내수기업, 중견기업들까지 M&A에 참여하는 이른바 M&A 붐을 맞고 있음
 - 일본기업들의 M&A 붐은 1980년대 말 버블기, 그리고 2000년 전후 IT 버블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임
- 일본은 유럽의 재정불안 여파가 비교적 적어 자금조달 환경이 양호해진데다 엔高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기업들이 신흥국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임
- 최근 M&A특징은 글로벌기업에 가세하여, 해외시장에서의 활로 모색, 해외이전수요에 대응을 목적으로 한 내수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M&A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
 - 타케다 약품은 지난 5월 스위스 중견 제약회사 나이코메드를 매수하기로 결정. 매수규모는 96억유로로 동유럽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강화할 계획임
 - 아사히그룹홀딩스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주류사업을 하고 있는 인디펜던트 리커그룹을 약 900억엔에 매수하기로 함.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제2위 청량음료회사인 페르마니스도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M&A를 확대할 방침임
- 한편, 자금조달 여건면에서 엔高에 가세하여 해외기업들의 주가가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그만큼 M&A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줄여줌으로써 일본기업들의 해외 M&A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
- 그런가하면, 최근정부의 엔高대책 일환으로 기업들의 해외M&A를 촉진하는 자금을 일본 국내은행에게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소위 3대 메가은행(미즈비시UFJ파이낸셜그룹, 미즈호파이낸셜그룹, 미즈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)들이 M&A 융자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해외M&A를 지원해 주고 있음
- 이와같이 일본기업들의 M&A붐이 조성된 데는 엔高를 비롯하여 높은 법인세율, 노동규제, 환경제약, FTA의 부진, 전력 부족 등 이른바 「6중고」로 일본에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파나소닉, 리튬이온전지 중국에서 50%생산, 일본내 생산은 반감

- 파나소닉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리튬전지의 일본내 공장을 재편, 2012년 말까지 생산량의 50%만 일본에서 생산하고 대형투자는 보류하는 한편, 중국내 생산비율은 현재 10~20%에서 3~4년 후에는 50%로 확대할 계획. 제조비용을 낮춰 삼성 등 한국기업에 대항한다는 것임
- 파나소닉은 환경에너지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리튬 전지는 동 분야의 주력제품임. 연간 매출액은 약 3,000억엔에 달하나 최근 한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, 수익력이 떨어짐에 따라 비용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임
- 이에따라 일본내 리튬이온전지 투자는 중지하고,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기술유출방지효과도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리튬의 국내생산은 앞으로도 중시할 방침임

□ 일본의 부품메이커들 중국내륙부에 진출

- 일본의 대형 전자부품메이커들이 중국내륙부에 영업거점을 개설. TDK, 무라타제작소가 금년 여름까지 중국 서북부 서안에, 롬은 중경이나 동북부 장춘에 진출.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밀집해있는 연해부에서는 인건비가 상승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임
- 일본기업들은 차세대전화기나 PC 등에 탑재를 목표로 내륙부에서 고객에 밀착된 영업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. 영업담당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들도 배치하는 등 고객의 문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수요확보를 위한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음

□ 이토추상사 프랑스기업과 제휴,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판매

- 이토추상사가 프랑스기업 스트리트라이트비전사와 제휴하여 에너지절약형 가로등시스템 판매에 나섬. 가로등의 원격제어 소프트웨어개발·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스트리트라이트비전사의 제품시스템은 가로등을 네트워크로 연결, 최적 제어함으로써 종래에 비하여 전력소비량을 약 30%정도 줄일 수 있음
- 이토추상사는 절전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체 등에 판매하게 되는데, 2014년에 일본내 가로등의 약 10%에 해당하는 약 100만대의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2012년도 경제산업정책의 과제와 대응 발표

○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요구예산규모를 1조 793억엔으로 책정(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), 다음 4개 분야에 중점 배분할 방침

(1) 원자력사고, 지진재해로부터의 회복

- 피해 중소기업지원과 동북지역발 새로운 성장 실현
-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사고의 조기 마무리

(2) 에너지정책의 개혁

- 전력공급 부족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
- 에너지정책의 개선과 전력시스템 개혁
- 자원·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제 강화

(3) 급격한 엔高, 공동화에 대응

- 중요 기술·산업의 유출방지
- 국내사업환경의 국제적 조화와 대형 시장권과 경제적 연대

(4) 내수활성화, 글로벌화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

- 내수확대·신시장 창출/민관일체의 신흥국시장 개척
- 미래개척기술의 개발/중소기업의 잠재력 활용, 전략적 경영력 강화

□ 중소기업 의료기기개발 지원

- 현재 일본의 의료기기 개발분야가 수입초과상태에 있어 새로운 성장분야로서 육성할 목적
- 경제산업성은 특히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치료실험이나 승인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과제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

□ 기업의 사업재구축계획 인정

- 산활법(산업활력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)에 의해 3건의 사업재구축(기업합병)계획을 인정
- 닛테츠상사코일센터, 오오사카철관공업주식회사, 미쓰이물산코일센터 등 3개사 합병
- JVC켄우드, 일본빅터, 켄우드, J&K카일렉트로닉스 등 4개사 합병
- 지오스타, 동경에콘건설 등 2개사 합병

◆ 보고서 리뷰

『신흥국기업의 대두와 환율 전가』 일본은행, 9월27일

- 본 보고서는 일본시장에서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기업의 점유율 상승이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, 신흥국기업의 일본시장 확대와 일본의 수입가격 및 국내가격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음
- 즉, 환율이나 외국기업의 생산비용 변화가 일본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에 전가(pass-through)되는 정도(전가율)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음

□ 이론적 검토

- 이론면에서 일본은 중간재무역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
 - 일례로 일본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외국기업군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경우, 이들 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일본기업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게 됨
 - 또한, 일본에 있는 거래상대기업에 대한 가격지배력도 높아짐. 이와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자-수요자 쌍방 과점구조가 존재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점유율 확대가 전가율을 높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

□ 실증분석결과

- 실증면에서는 산업별 data를 이용하여 환율이나 외국의 비용요인이 일본의 수입가격, 국내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를 추정하고 있음.
 - 여기서 전가율의 시간적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 산업에서 점하는 수입품의 비중 추이와 비교함으로써 양자간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
 - 분석대상 산업은 섬유, 철강, 플라스틱제품이며 특히 섬유제품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환율이나 중국에서의 가격변화가 일본의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
 - 철강과 플라스틱제품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이론 모델과 정합적인 결론을 도출

□ 시사점

-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결과를 한·일간 무역에 적용하는 경우, 한국상품의 일본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수출가격전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
 - 바꾸어 말하면 대일수출 초기단계와 비교하여 그만큼 경쟁력이 있거나 일본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수출물량 유지에 전전공공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(1) 『고령기의 근로방식 다양화 : 제3의 근로방식 확충을 목표로』

닛세이기초연구소, 9월27일

*출처:<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report/2011/10/rep01110-1.pdf>

(2) 『신흥국기업의 대두와 환율 전가』 일본은행, 9월27일

*출처: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1/wp11j06.htm

(3) 『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』 해외투융자정보재단, 9월27일

*출처:<http://www3.keizaireport.com/jump.php?RID=142755&key=563>

(4) 『일본의 국가재정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』 회계감사원, 9월29일

*출처:<http://www.jbaudit.go.jp/effort/study/mag/pdf/j44d02.pdf>

(5) 『재정투융자리포트 2011』 일본재무성, 9월30일

*출처:http://www.mof.go.jp/filp/publication/filp_report/zaito2011/index.html

(6) 『일본의 스크루플레이션 조짐 : 중저소득층을 괴롭히는 물가의 양극화』
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9월30일
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naga/pdf/n_1109a.pdf